

경 남 · 부 산 지 역 광 역 상 수 도
황 강 취 수 장 설 치 반 대 결 의 문

우리 거창군의회는 최근 정부의 낙동강 및 황강수계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을 지켜 보면서 무책임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의 황폐화와 관련 지역의 희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황강상류에 위치한 우리 거창군과 8만 군민을 대신하여 거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재 진행중인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

1. 대구 위천 국가공단조성 계획과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은 한마디로 오염된 낙동강은 버리고 수질이 잘 보존된 황강을 경남·부산지역 주민의 식수원으로 선택한다는 행정 편의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계획으로서, 황강의 맑은 물 공급의 원천인 우리 거창군은 이를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
2. 황강취수장 설치의 근본 이유는 낙동강의 수량 부족이 아니고 악화된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낙동강을 살리고 수질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주변 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의 지정 고시 등을 통해 낙동강 희생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치 없는 대안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3. 황강취수장 설치에 정부에서 본계획과 관련된 주민·기관과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당하게 될 지역 주민의 불이익이나 피해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처사로서 이에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이며, 거창군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떠한 계획의 시행도 이를 반대한다.

4. 우리 거창군은 황강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전체군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나, 현재 수준 더 이상의 타에 의한 어떠한 희생도 강요 당하기를 원치 않으며, 따라서 거창군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가 예견되고 군민의 생활권, 생존권의 제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결단코 반대한다.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구현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없이 소수인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황강 취수장 설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본 결의를 통해 대외에 천명하면서, 우리의 의사가 받아들여지기를 관계 당국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며, 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군 전체 군민은 뜻을 하나로 모아 군민의 생존권 수호적 차원에서 강력한 행동을 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한 그간의 합천 군민들의 노력에 공감과 격려의 뜻을 표하며, 필요시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방안의 모색을 검토할 것이다.

1996. 3. 12

거 창 군 의 회 의 원 일 동